

'안방 강자' 광주FC 1위 굳히기 나선다

오늘 FC안양 상대 K리그2 27R 전남은 김포FC와 홈경기



허율

광주FC가 안방에서 연승으로 1위 굳히기에 나선다. 광주는 15일 오후 7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FC안양을 상대로 K리그2 27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앞선 26라운드 서울이랜드 원정에서 2골을 먼저 내줬지만, 정호연의 프로 데뷔골과 경기 종료 직전 터진 엄지성의 페널티킥골로 극적인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귀한 승점 1점을 더한 광주는 휴식 라운드를 보낸 대전하나시티즌을 10점 차로 밀어냈다. 안방에서 강했던 광주는 분위기를 살려 연승에 도전한다. 광주는 지난 6월 26일 경남FC와의 23라운드 홈경기에서 1-4로 지기 전까지 홈 10연승 질주를 했었다. 수비가 흔들리면서 패배를 남겼지만 광주는 7월 5일 부천FC와의 25라운드 홈경기를 2-1로 마무리하며, 다시 승리를 만들었다. 광주는 '광탄소년단'을 앞세워 홈 연승을 노린다. 앞선 서울이랜드 원정에서 선발로 나선 정호연은 적극적인 압박과 볼 전환으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했고, K리그 데뷔골까지 만들었다. '공격의 핵'인 엄지성은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과 드리블로 공격을 이끌었고,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 승점 1점을 만드는 동점골도 장식했다. 역시 금호고 출신의 '장신 공격수' 허율도 더 치열해진 경쟁 속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 2실점은 했지만 조직력은 탄탄하다. 광주 수비의 중심인 주장 안영규가 앞선 라운드에서 휴식을 취하며 재출전의 시간을 보냈고, 교체 투입된 아론의 현신적인 플레이는 여전했다. 광주를 찾는 안양은 백성동을 비롯해 김영중, 조나탄 등 핵심 선수들의 활약 속 최근 6연속 무패(4승 2무) 행진을 달리고 있다. 상대전적에서는 광주가 앞선다. 광주는 안양과의 대결에서 8승 6무 5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올 시즌에도 1승 1무를 기록했다. 특히 앞선 맞대결에서는 광주가 4골을 몰아넣으면서 4-0 대승을 장식했었다.

광주가 '홈 강세'를 이어 안양을 꺾고 조기 우승을 위한 걸음을 재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남드래곤즈도 안방에서 10경기 무승 부진 탈출에 나선다. 전남은 17일 오후 6시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김포FC와 27라운드 홈경기를 갖는다. 전남은 앞선 26라운드 충남아산 원정에서 0-4로 지는 등 10경기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분위기 반전이 시급한 전남은 안방에서 반드시 결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전남은 앞선 22라운드 김포와의 맞대결에서 2골을 먼저 넣고도, 후반 추가 시간에 동점골을 내주면서 승점 1점에 만족해야 했다. 충남아산전에서 쓴 패배를 기록한 전남이 '조심'으로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눈길이 쏠린다. 한편 전남은 이번 경기에서 제30회 여왕기 전국 여자축구대회에서 우승한 광양여고 축구부를 위한 축하 이벤트를 연다. 지역 연고 여자축구부 광양중앙초, 광양중도 초청해 오프 홈윈식도 진행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13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홉스퍼의 친선경기에서 토트넘 손흥민이 멀티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흥민, 서울서 토트넘 옷 입고 '펄펄'

팀 K리그와 경기서 멀티골 토트넘 6-3 승리 이끌어

손흥민(30·토트넘)이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 멀티골을 가동하며 국내 팬들에게 시원한 여름밤을 선물했다. 손흥민은 13일 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과 K리그 선발 팀 '팀 K리그'의 쿠방플레이 시리즈 친선 경기에서 후반 23분과 40분 두 골을 몰아치는 등 열정적인 플레이를 선보였다. 2021-2022시즌 EPL에서 23골을 몰아쳐 무함마드 살라(리버풀)와 공동 득점왕에 오른 그는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하며 변함없는 '해결사'의 면모를 뽐냈다. 그의 멀티골을 앞세워 토트넘은 팀 K리그를 6-3으로 꺾었다. 손흥민이 후반 3분 그라운드에서 나서자 박수 소리가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한국 팬들에게도 익숙한 손흥민과 케인의 조합은 보는 즐거움을 더했다. 양 팀이 2-2로 맞선 후반 9분 케인은 멋진 왼발 중거리포로 골망을 흔든 뒤 왼쪽에 있던 손흥민을 깨안으며 우정을 과시했다. 이후엔 본격적으로 손흥민의 시간이 펼쳐졌다. 후반 23분 팀 K리그 아마노(울산)의 핸드볼 반칙으로 페널티킥이 선언되자 키커로 나선 손흥민

이 오른발 슈트로 이를 성공시켰다. 울여름 토트넘에 합류한 히사틀리송이 곧바로 달려가 그에게 업혔고, 케인은 또 한 번 손흥민과 포옹했다. 다른 동료들과도 득점을 자축한 손흥민은 미소와 함께 팬들이 기다리던 '찰각 세리머니'도 잊지 않았다. 손흥민은 경기 내내 번뜩이는 돌파로 관중을 들뜨게 했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의 토트넘 응원가를 부르며 마음껏 '직관'의 기쁨을 누렸다. 후반 28분 거침없는 돌파로 김동민(인천)의 퇴장까지 유도한 손흥민 후반 40분 상대 수비를 제치고 오른발로 쐐기골까지 책임져 이날의 완벽한 주인공이 됐다. /연합뉴스

KBO 3년 만에 '별들의 잔치' 15·16일 잠실에서 올스타전

KIA, 16일 양현종 등 7명 출전

잠실야구장이 3년만의 '별들의 잔치'로 뜨거워진다. KBO는 15·16일 잠실야구장에서 올스타전 무대를 펼친다. 15일은 '올스타 프라이데이'다. 퓨처스 올스타 팬사인회를 시작으로 오후 6시부터는 남부리그(KIA, 상무, 롯데, NC, 삼성, KT)대 북부리그(LG, 고양 히어로즈, 두산, SSG, 한화)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KIA에서는 이승재·김도현(이상 투수), 김선우(포수), 이인환(외야수)이 퓨처스 올스타로 잠실을 찾는다. 퓨처스 올스타전이 끝난 뒤에는 축제 한마당이 연이어 열린다. 스트리트 워먼 파이더로 큰 사랑을 받은 여성 댄스 크루 후크(Hook)가 강렬한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2022 KBO 올스타로 선정된 5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홈런레이스'도 진행된다. 16일에는 KBO 올스타전이 팬들을 찾는다. 사전행사로 팬 사인회가 마련됐으며, 드림·나눔 올스타 2명씩 총 4명의 선수가 참여해 팬들과 함께 고무공으로 즐기는 5대5 길거리 야구게임인 '베이스볼 5'을 진행한다. 오후 4시 20분부터는 선수와 팬이 함께 달리는 '신한은행 SOL 슈퍼레이스'가 펼쳐진다. 각 구단의 선수 2명은 어린이 팬과 보호자, 구단 마스코트와 팀을 이휘 낙하산 레이스, 점핑 디딤돌, 오투기 허들 등 총 6개의 장애물 코스를 통과

해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린다. 단장, 감독, 선수 등 162명의 전문가 투표와 팬 투표로 선정된 '레전드 40인' 최다 득표 4명도 이날 공개된다. 10개 구단 팬들이 함께하는 시구 행사에 이어 오후 6시부터는 나눔 올스타(KIA, LG, 키움, NC, 한화)와 드림 올스타(KT, 두산, 삼성, SSG, 롯데)의 맞대결이 펼쳐진다. KIA에서는 '최다득표'에 빛나는 양현종(선발 투수)과 함께 정재영(마무리 투수), 황대인(1루수), 김선빈(2루수), 류지혁(3루수), 나성범(외야수), 최형우(지명타자)가 올스타 무대를 밟는다. 베스트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박동원과 소크라테스는 부상으로 참가가 불발됐다. 클리닝 타임이 끝나고 난 뒤에는 10번째 베스트 선수로 올스타전을 찾는 롯데 이대호의 은퇴 투구가 진행된다. 올스타전의 대미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장식한다. 한편 이번 올스타전을 맞아 잠실야구장에는 '팬 페스트존'이 마련된다. 팬 페스트존에서는 베이스볼5, 러닝 LED, 플라잉 개지, 도전 160km, 베스트 키스톤 플레이어 등의 체험 행사가 진행된다. 10개 구단 라커룸을 재현한 포토존이 설치되고, 마켓존에서는 2022 KBO 올스타 기념상품이 판매된다. 분석, 치킨, 주류, 피자 등 10개 구단의 대표 먹거리를 푸드트럭으로 만날 수 있는 '먹거리 올스타전'도 흥미롭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이상혁, 세계 정상 향한 첫 도약

내일 2022 세계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예선 출전

'스마일 점퍼' 이상혁(26·국군체육부대)이 한국 육상 역대 첫 세계(실외)육상선수권대회 우승을 목표로 첫 도약에 나선다. 2022 세계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예선은 한국시간 16일 오전 2시 10분 미국 오리건주 유진 헤이워드필드에서 열린다. 예선에 출전하는 선수는 총 32명이다. 32명은 2개 조로 나눠 경기를 펼치는데, 결선 자동 출전 기록 2m31을 넘거나 조에 상관없이 상위 12명 안에 들면 19일 오전 9시 45분에 열리는 결선에 진출한다. 2m31을 시도하기 전에 상위 12명이 가려지면 예선은 종료한다.

2019년 도하 세계선수권에서도 결선 자동 출전 기록은 2m31이었지만, 실제 예선은 2m29까지만 치렀다. 당시 2m29를 넘는 선수 10명과 2m26을 2차 시기에 넘는 선수 2명이 결선에 진출했다. 그동안 한국 남자 높이뛰기에는 '예선 통과'도 높은 벽이었다. 이진택은 1999년 세비아 대회에서도 2m29로 결선 진출에 성공했거, 결선에서도 2m29를 넘어 6위를 차지했다. 이진택이 1999년 대회에서 달성한 6위는 실외 세계선수권 한국 높이뛰기 역대 최고 성적이다. 이진택 외에는 결선에 진출한 우리나라 '점퍼'도 없었다.



이상혁

이상혁도 2017년 런던 대회에서 2m22에 그쳐 예선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상혁이 16일 예선을 통과하면 이진택 이후 23년 만에 세계선수권 결선 무대에 선다. 세계육상연맹은 남자 높이뛰기 우승 경쟁을 이상혁, 바심, 탬베리 등 '빅3'에, 홈에서 경기하는 해리스, 셸비 매큐언(미국)이 도전하는 구도로 전망한다. 2022시즌 최고 기록만 보면 실내경기를 포함해 2m36까지 뛴 이상혁이 바심(2m30)과 탬베리(2m31), 해리스(2m32), 매큐언(2m33)에 앞선다. /연합뉴스